

# 1920년대 러시아 캄차트카반도 이주 한인들의 정착과 생활에 대한 연구\*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극동의 수산(極東之水産)』을 중심으로-

방민규\*\*

목 차	
I. 들어가는말	캄차트카반도 이주 한인들의
II. 『극동의 수산(極東之水産)』 개관	정착과 생활
III. 러시아 자료를 통해 본	IV. 맺음말

| 논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극동의수산(極東之水産)』을 통해 1920년대 러시아 극동 캄차트카반도 이주한인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학계나 일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극동의수산』의 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던 캄차트카반도 이주한인들의 삶에 대한 자료를 소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산업 전문서적으로 당시 일본이 수산업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러시아 캄차트카반도의 수산업 현황, 통조림 제조 등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극동의수산』은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 14년 후인 1924년에 발간된 수산업 전문서적이다. 일본어로 쓰여진 자료를 번역하고 검토하여 이주한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살펴보았다. 러시아측 자료 또한 검토하였는데 러시아 자료에 따르면 1910년대 캄차트카반도에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0년 동안 이주 한인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NRF2022S1A5C2A01092699)

\*\* 방민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연구교육부장.

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일본은 제조업, 자본 수출, 재정 통제 등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일본인에 의해 1924년에 출판된 캄차트카반도 수산업 전문서적에 한인 이주민에 대한 기록이 실린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여겨진다. 조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저자 하야시 고마오(林駒生) 역시 러시아 극동 캄차트카반도에서 만난 이주 한인들의 근면함, 성실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는 러시아인들의 이주 한인에 대한 평가와도 유사해 이주 한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국립해양박물관, 러시아, 극동의수산, 캄차트카반도, 이주 한인

## I. 들어가는 말

2024년은 한인<sup>1)</sup>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60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진행되었다<sup>2)</sup>.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더라면 한러수교 34주년과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 140주년 기념 등 양국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해인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1863년 이후에 러시아에 이주한 조선인이 최초로 건설한 마을은 현재의 연해주 변강주 포시에트(Посыет) 구역의 지신허(地信墟, Tezinhe)<sup>3)</sup>마을이다. 아마도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기록이 있기 전부터 두만강 주변에 살던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넘어가는 일은 흔한 일이었을 것이다(이상근 2010, 366).

이후 1865년에는 추풍(秋風, 수이푼)<sup>4)</sup> 지역에도 100여 호에 달하는 조선

- 1) 현재를 기준으로 한인(韓人)이나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감안하여 본문에서는 조선인(朝鮮人)과 병기한다.
- 2) 러시아의 니콜라이 페도로비치 부가이 교수는 그의 저서(2004)에서 1864년을 공식적인 한인 이주의 첫해로 보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공식허가를 기준으로 본 것이다. 한국 측 자료에서는 대부분 1863년으로 표기하는 등 논쟁이 다소 있지만 본고에서는 1864년으로 추정한다.
- 3) 현재 지명은 우로치체 비노그라드노예(Урочище Виноградное)로 1937년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면서 콜호즈로 바뀌었다.
- 4) 추풍은 소왕령이라 부르던 니콜리스크의 서쪽으로 중국에서 발원하여 연해주로 흘러드는 수분하 일대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의 지역개념이다.

인들의 마을이 성립되었다. 1860년대 후반과 1870년대에는 상당한 수의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여 니콜리스크(Nikol'sk, 현 우수리스크)<sup>5)</sup>와 하바롭스크, 사만리,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마을이 개척되었다. 흑정자, 녹둔, 도비허, 남석동, 와봉, 시지미, 아지미, 수청(빨치산스크) 등도 이 시기에 성립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초기 이주 조선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sup>6)</sup>.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을사늑약, 정미 7조약, 군대해산, 의병 탄압 등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국권침탈이 가시화되면서 정치적 망명자들의 수도 급증했다. 하지만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국 러시아인의 이주가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은 1895년 연해주 총독으로 부임한 운테르베르게르(Унтербергер Павел Федорович)였다(이채문 2000, 53; 박경숙 2009, 29-58; 박보리스·부가이 2004, 530). 그는 한인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대표적인 조치로 먼저 귀화 한인들의 권리심사를 강화하고, 어장과 사금장에서 한인노동자들의 취업을 금하고, 러시아 국적 한인들에 대한 관유지(官有地)의 임대를 금하는 것 등이 있다(이동언 1991, 205-232).

하지만 1910년 국권피탈과 함께 한인들의 이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한 한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수가 이주를 했기 때문이다. 1910년 초반 이주 한인의 수는 대략 5만 정도였고, 1917년경에는 약 100,000명의 이주 한인들이 있었으며, 1932년에는 약 150,000명의 이주민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였다. 1934년 이후 스탈린에 의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전까지 한인 이주민 수는 약 200,000명을 상회하였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와 사할린에 주로 거주했던 한인들이 캄차트카 반도에 이주한 기록은 아브라모바(Абрамова Е.П. 2022)의 캄차트카 반도 교회

5) 옛 이름은 니콜리스크우수리스키(Nikol'sk-Ussuriiski, 1895~1935년), 보로실로프(Voroshilov, 1935~1957년)이다.

6) 조선인 이주민 중에는 후에 러시아로 귀화한 이들과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조선인들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로 귀화한 '원호(元戶)'를 중심으로 러시아 여권을 가진 조선인들이 1902년에 32,298명, 1908년에 47,289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가 급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 교구 등록부(1988-1925)에서 발견한 1914년까지 거주한 60명에 대한 기록에서 확인된다. 또한 정치가이자 시베리아 연구가였던 니콜라이 곤다티(Н.Л. Гондатти)가 1911년 아무르 총독이 되면서 발표한 법률 면제조치에서 한인들이 캄차트카 반도 서부 해안을 따라 전신선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한 결정에서도 보여진다. 물론 한인들이 상술한 기록들보다 훨씬 이전에 캄차트카 반도에 나타났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국의 하와이 이민보다 일찍 시작된 한인의 러시아 이민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새로 발굴된 러시아측의 자료와 관련된 학자들의 관심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의 중앙아시아로의 이주(Young Sool Kim 2021, 51-95), 러시아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이채문 2000a, 53) 같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중앙아시아 한인사회 또는 사할린 한인사회에(이재혁 2011, 85-135) 대한 관심으로 확대된 연구도 있긴 하지만 특히 극동지역 캄차카반도 한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배은경 2000, 268-306).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자료 『극동의 수산(極東之水産)』 자료를 통해 1920년대 러시아 극동 캄차트카반도에 거주했던 한인들의 정착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시각에서 한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본문 속 내용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한국학계와 일본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극동의 수산』의 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었던 캄차트카반도 거주 한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산업 관련 전문서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수산업에 집중하였는지와 함께 어업 및 통조림 제조 등 기술적인 부분이 서술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한인에 대한 서술부분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전체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극동의 수산』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Ⅱ. 『극동의 수산(極東之水産)』 개관

### 1. 서지사항 및 출판 배경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극동의 수산』은 조선수산협회(朝鮮水産協會)가 1924년(대정13년) 12월 발간한 수산업 전문서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1897년 법률 제45호로 원양어업장려보조법(遠洋漁業獎勵補助法)을 발표하여 조선·러시아령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浦塩]·대만 등지로 출어하는 어선을 보조하여 이를 장려하였다(요시다 케이이치 2019, 268).

『극동의 수산』 발간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연안어업은 인구의 증가·산업경제의 발달·문화의 향상 등으로 어장의 협소함이 드러나 이전부터의 영세어업으로는 운영이 곤란해졌다. 이에 포경어업이나 트롤(전인망)어업 등의 원양어업과 조선으로의 출어가 그 대책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으로의 통어 장려는 국가·각 부·현·조선해통어업조합연합회 및 각 부·현의 수산조합 등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초기의 통어자는 대부분 일본 서부의 어민으로, 절반이 한 어기에 한 어종을 목적으로 하는 계절적인 출어어업으로 연안의 영세 어업자들이었다(요시다 케이이치 2019, 280-281). 그러나 일본의 각종 어업이 조선에서 행해지자 조선의 전통 어업도 급속히 일본식 어법으로 전환되었다.

조선 연안은 일본과 함께 북태평양 서안에서 고등어의 주요 분포지이다. 일본 어부들은 일찍부터 부산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해협을 주요 어장으로 하되, 거제도물 기지로 삼아 본격적인 어장 개발에 착수했다. 1908년 방어진에서 박망(縛網)어업을 시작하고 많은 조선인을 고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이 조선 어업개발사에서 조선인을 고용한 최초의 기록이다<sup>7)</sup>. 하지만 1910년대 후반에는 쇠퇴하게 되는데 이를 대신해 1922년부터 동력으로 작동하는 건착망(巾着網)이 출현하여 고등어어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극동의 수산』의 주된 내용은 캄차트카반도의 수산업 현황 특히 연어·송어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연어는 동해안의 하구에서 주로 잡히

7) 1910년대 초기에는 카가와현의 박망업자도 방어진을 근거지로 해서 출어하였다. 1915년에는 27통(256척, 1,620인)으로 증가하였다.

는데 연어어장은 원래 대구와 마찬가지로<sup>8)</sup> 대부분 궁내부의 소관에 속하여 해마다 허가를 받아 조선인이 경영했다. 1907년 영흥만의 용흥강(龍興江)에서 2~3조의 통어자가 경영한 것을 최초의 사례로 보고 있다. 그리고 1909년 모선식(母船式)에 따른 통어단을 조직하여 원산을 근거지로 각종 어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눈에 띄는 개발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조선해수산조합본부 1909, 148).

위와 같은 배경에서 초기의 통어는 대체로 영세하였으므로 왕복하는 날이 많이 소요하게 되면 조난의 위험도 급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단일 경영이 많았으므로 하루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대안이 없었다. 통어자는 대부분 장년의 남자였고, 또 장기간 외지에서 활동하였으므로 범죄나 사회활동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 정부는 이주어촌의 경영이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러일전쟁 무렵부터 일본의 인구 증가와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 등에 따라 대만·사할린 등으로의 식민적 이주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조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농업이민과 서로 호응해 이주어촌의 건설로 나타나게 된다. 한일강제병합과 함께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산업·경제면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인의 이주어촌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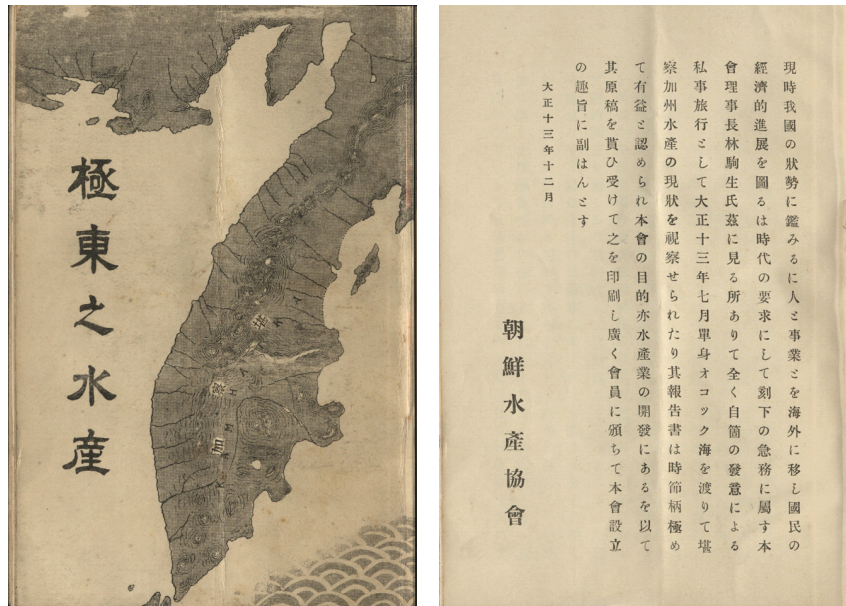
『극동의 수산』은 통제림 제조 등 수산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자료 출간 전인 1910년대 초반에서 1920년 중반까지의 조선의 수산제조업은 전통적인 조선식 제조법에서 일본식 제조법으로의 개량·시험기였다. 1912년 시작된 한천(寒天) 제조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간유, 부산물 및 해조 이용에 관한 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시험의 결과는 바로 민간의 운영으로 옮겨 이를 지도하고 개량·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캄차카반도 내 일본 통조림제조회사의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수산제조업에 대한 서술은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극동의 수산』의 저자인 하야시 고마오(林駒生)는 1870년생으로 일본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다. 청년기부터 수산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수산전습소 출신인 부분이 큰영향을

8) 조선 북부의 대구어업은 러일전쟁 전후부터 니가카현 출신의 오오타케 칸이치(大竹貫一)가, 그리고 1908년경부터 아키타현의 이이사와 겐지(飯澤元治) 등이 경영하였다.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이근우 2011, 103-128). 특히 조선해의 어업자원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1903년 ‘조선해운조합연합회(朝鮮海運組合聯合會)’가 설립되자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산·부산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난 후 1907년에 통감부의 수산기사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이런 초고속 승진에는 그의 유력 가문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909년 순종이 지방을 순행할 때 부산 행재소에서 만난 부산 지역 유력 인물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추정되는 부분이다.

<그림 1> 캄차트카반도를 배경으로 한 『극동의 수산(極東之水産)』 표지와 발행현황



## 2. 목차 및 주요내용

### 1) 목차

<b>1. 캄차트카[樺察加]의 일반현황</b> 1) 위치 2) 면적 및 지세 : 면적 114만 평방 露里 3) 인종 및 인구 4) 기후 5) 교통 6) 행정 7) 토착민의 생활상태 8) 교육 9) 위생 10) 종교 11) 캄차카의 조선인 상황	10) 어획 종류와 크기 11) 최근 3년간 어획량 12) 니치로(日魯) 어업회사의 어업설비
<b>2. 캄차트카의 어업</b> 1) 총론 2) 연어·송어 어업의 연혁 3) 일본인 경영 어장 4) 러시아인 경영 어장(연어·송어) 5) 각 감시구(監視區)의 어장 임대료 및 어획 제한량 6) 최근 3년간 중국인 투자 금액 및 생산금액 7) 생산물 수출국 및 금액 8) 어구의 종류 및 구조와 사용법 9) 캄차카의 올해 어업 현황	<b>3. 캄차트카의 통조림업</b> 1) 니치로 어업회사의 통조림 공장 설비 2) 최근 3년간 통조림 제조량 3) 통조림의 판로 4) 게 어업 및 통조림 가공업 5) 공선(工船)을 이용한 통조림 제조업
	<b>4. 염어(鹽魚)의 제조</b> 1) 각종 염어의 제조법 2) 염어의 판로 3) 염어의 가격
	<b>5. 캄차트카에서 가능한 수산 제조업</b>
	<b>6. 러시아의 국영 어업</b> 1) 국영 어업의 발달 2) 국영 어업의 경영법 3) 개인 어업과 국영 어업의 관계
	<b>7. 결론</b>

## 2) 극동의 수산 1장(캄차트카의 일반현황)의 주요내용

### (1) 위치

캄차트카주는 아시아의 북동에 위치한다.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 접하며 오리우토리스크(オリウトルスク)에서 오호츠크해와 베링해를 분할한다. 마름모꼴의 반도는 멀리 남쪽에서부터 길게 이어져있고, 약간의 해협을 사이에 두고 쿠릴열도의 솜슈섬(占守島)과 마주본다.

### (2) 면적 및 지세: 면적 114만 평방露里<sup>9)</sup>

동해안은 산맥이 늘어서 있다. 해안은 개의 이빨처럼 굴곡지고 대체로 지세는 험준하며, 평지는 적다. 서해안은 해안에서 산기슭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다. 그래서 일견 아득한 평야 수백 리에 걸쳐 공허하게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연안은 곧고 단순하며 항만이 하나도 없다. 수심은 먼 곳까지 얕아 해안변의 파도도 잔잔한 편으로 다행히 연어, 송어의 성어기인 7~8월은 매우 잔잔하다. 대체적으로 지세는 조선과 흡사하지만 인구는 희박하기 때문에 아무런 인위적인 흔적없이 방치되어 있다.

### (3) 위치

인종은 순수 러시아인, 캄차달인(대부분을 차지함), 길랴크(서북부에 위치하며 세력을 형성하지는 않음)<sup>10)</sup>, 축치(동북의 작은 소부족 중 하나) 등으로 총인구는 약 36,000명이다. 그중 순수한 러시아인은 4,500명이고 그 외의 대부분은 캄차달족이다. 캄차달족은 러시아인과 혼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하기가 어렵다. 길랴크, 축치는 세력이 빈약하여 보기 쉽지 않다. 조선인 37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모두 귀화하여 토착민과 동등하다. 중국인은 약 100명, 일본인은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본 주의 수도인 '페트로파블롭스크'를 중심으로 하며 아무런 세력이 없다.

9) 베르스타, 과거 러시아에서 쓰던 길이 단위, 1베르스타=1.0668km

10) 니브히족, 러시아연방 극동지방 아무르강의 하류 유역과 사할린에 거주하는 토착민

(4) 기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한파가 매우 심하여 우리 일본인들은 혈거(穴居)와 같은 거주방식을 취하고 있다. 6월부터 9월 중에는 화씨 46도 내지 57~58도 사이가 보통이다(드물게 70도까지 오를 때도 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시기가 연어, 송어, 게의 성어기이기도 하다. 날씨가 극히 좋은 것도 9월 이후에는 비바람이 거센 날이 많아 항해가 위험하고 해상 조업이 곤란하다. 토착민들은 결빙기에 따라 연중 활동기를 정한다. 즉 본주(本州)는 해로를 열지 않고 하천은 불규칙하게 흘러 교량을 건너는 배와 같이 인위적인 설비가 없으면 결빙기에는 교통이 곤란해진다. 결빙 중에는 전체 반도가 한장의 유리판과 같아서 개펄매를 이용하면 교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때 수렵을 활발히 한다. 일본인들도 가옥과 의복에 방한설비를 하면 물론 거주하기 부족하지는 않은 곳이다. 여름철에는 매일 구름이 많고 안개가 짙어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점은 불쾌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해가 길 때는 주간이 18시간에 달하여 일몰 후라 하더라도 희미한 달이 뜬 밤과 같은 풍경이다.

(5) 교통

Ust-Kamchatsk - Tilgil 간 / Tilgil - 포르세키(ポルセッキ) 간 포르세키(ポルセッキ) - 하이유(ハイユウ) 간 등과 같이 반동의 요지에 불완전한 전신(電信)이 있는데 다소 부족하지만 뛰어나다고 할 만하다. 어획기 중 우리 출어자(出漁者)<sup>11)</sup>들은 니치로어업회사 전속 초세키마루(潮汐丸)의 무선 전신을 빌려 용무를 본다. 항로는 동절기 연안의 결빙과 악천후로 인해 외부와의 교통은 완전히 단절된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러시아 의용함대의 선박이 다음과 같은 예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사이를 항해한다.

<표 1> 선박 항해 현황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트카 동해안 북부까지	봄, 가을 각 1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트카 남부까지	봄, 가을 각 1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트카 서해안 남부까지(오제르노이 지방)	봄, 가을 각 1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트카 동해안 북부까지(뽀타이름 지방)	봄, 가을 각 1회

11) 본문 속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일본인을 지칭한다.

전술한 것 외에 어획기 즉 5월에서 8월까지의 홋카이도의 쿠리바야시상 선주식회사가 우리나라(일본) 체신성의 보조를 받아 캄차트카 동서 해안에 2,000톤급 기선을 가지고 6회 정도 항해했다. 러시아인들 대부분도 이 선박으로 오타루, 하코다테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와 연락을 취한다.

5, 6월은 일본인 출어지가 어부 및 물자의 운반에 약 50척, 8월부터 9월 상순까지는 제품의 적재 및 사업 정리를 위해 약 60척 이상의 기선을 하코다테, 오타루, 캄차트카 주 사이를 왕복하기 위해 편승한다.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약간 고온이므로 항구가 많다, 그중에서도 페트로파블롭스크는 12월 초순까지 거의 결빙되지 않아 쇄빙선이 있으면 1년 내내 입항할 수 있다. 보통 12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약 5개월 간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6) 행정

러시아 행정은 주혁명위원회, 군혁명위원회, 마을혁명위원회로 구분하여 맡고 있다. 다음은 주혁명위원회의 조직구성이다. 소비에트의 권한은 내무행정으로 사법권, 우편, 사무, 행정 등이 이에 속한다. 그 기관은 주(州)혁명위원회 집행위원장 1명, 차장 1명, 서기관 2명, 그 외 판임(判任) 대우급의 서기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표 2> 주위원회 조직구성

페트로(베토)군	8명	페트로(베토)시	3명	오코츠크(오고츠크)군	10명
기지가군	4명	축치군	10명	아나디르군	10명
노동조합	1명	콘만도르군도(코소마솔) 군島	1명	-	-
총 47명					

경찰권은 혁명위원회의 일부에 속하며, 주(州)와 시(市)의 치안유지를 담당한다. 현재 캄차카주 전부를 통틀어 경부(警部) 이하 약 40명의 경리(警吏)가 있다고 한다. 그 외 페트로(베토)시에 10명 정도의 위병(衛兵)이 있어 그들이 경비를 맡는다. 사법권은 혁명위원회로부터 독립되어 치안판사의 권한에 속한다.

## (7) 원주민의 생활상태

원주민의 주요 생활방식은 어업, 사냥, 목축 등으로 농업은 겨우 자급할 정도의 소량의 양배추,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다. 서해안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 거의 없다. 동부 우스티 캄차트카강 유역 등은 기후가 다소 고온으로 드물게 귀리, 양배추, 감자 등을 재배하기도 한다. 하지만 월동 준비에 필요한 제조작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농경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식량으로 필요한 것은 밀가루, 차, 설탕, 식용소금, 버터, 술과 담배 등이다. 아무런 설비가 없는 땅에서 스스로 경작하기 보다는 힘들이지 않고 수렴할 수 있는 어업이나 사냥 등에 종사한다. 이러한 획득물을 가지고 상술한 식량과 교환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에 농업에 대해서는 극히 냉담하다. 야채류는 최근 일본의 기선편으로 종자를 가져와 주민들에게 배부, 과중하게 하는 지방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흥미와 열정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좋지 않고 늘 부족한 형편이다.

새와 짐승의 고기는 그들이 가장 자주 섭취하는 식량원으로 소, 돼지, 닭 등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지만 목표에 차지 않는 상황이다. 그들은 동절기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각 가정마다 개를 많이 기르는데, 돼지는 직접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에 기르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산간지방 특히 북부에서는 순록을 반야생으로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반도에 약 50만 두(頭)에 이른다고 한느 것으로 보아 그 지방에는 고기의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다.

주정(酒精)은 그들의 생존상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필수품이다. 러시아 정부가 1923년 가을부터 수출입 무역의 전체를 국영(國營)으로 하여 주정의 수입은 특히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품절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 가격도 보통 1파운드 1병(약 3홉 정도)이 16원 내지 20원인데 파스하(러시아의 부활절)라고 부르는 축일 등에는 1병 40원의 고가를 불러도 구매자가 있다고 한다. (미국 스펜슨 회사) 등은 종래 대량의 주정을 들여와 귀중한 모피와 교환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 외에 초, 석유, 성냥, 비누, 그물실, 옥양목(calico), 목면포, 밥공기, 접시, 냄비(동제 또는 범랑), 화약, 낫, 가위 그 외의 철제품도 그들 생활의 필수품이다. 현지에서는 하나도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어류 또는 동물의 모피와 교환한다.

그들의 생활은 전부를 수출입품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 정부의 국영은 공급의 전 책임을 지면서 자본력이 약해 설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착오가 생겨 물자의 결핍에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국영으로 어류, 모피 등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극도의 염가로 억지로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 대가로 물자를 통해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으로 높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토착민들은 생활의 안전을 바라는 이외에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욕구도 향상심도 없다. 가령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현재로는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도 없고 무의미하게 그 억압에 맹종할 따름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부는 교묘하게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표면적으로는 민중본위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실은 표방하는 것과 상반되게 극도의 전체주의적인 억압주의, 자본집중정책을 고집한다. 주요한 민간사업은 모두 국영에 빼앗겨 가림주구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권리만큼은 모세혈관의 말단까지 뻗쳐 국민에 대한 보호는 완전히 방임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분개하여 진정(陳情)위원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캄차카주의 재정적 자치를 애원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고, 갈수록 공산주의의 미명하에 실제로는 상반되고 있어 분개하기에 이르렀다.

#### (8) 교육

오호츠크 군에 중학교 1개, 페트로파블롭스크 시에 고등학교, 소학교 각 1개, 그 외의 각군에 국립 혹은 교회 설립의 소학교 30개가 있다. 학생 총 수는 남자 약 700명, 여자 380명 총 1,080명 정도이다. 그러나 그 소학교도 페트로파블롭스크 및 오호츠크 두 군에 집중해 있고, 다른 지방은 하나의 군에 1개교 혹은 아예 없는 군도 있을 만큼 교육이 없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뛰어난 교사 수 명을 고용하여 보낸 것도 단순히 인민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상기한 교육 상황으로 러시아 본국에서 먼 극동 변방에 있는 이 지역까지 정치가 미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므로, 문화의 개발 등도 몽상에 그칠 수 밖에 없다.

#### (9) 위생

겨울철은 추위가 매우 혹독하고, 여름철은 흐리고 안개가 심하여 햇빛이 약하고 공기는 습하고 기후는 불순하다. 인구는 희박하고 교통편도 적기 때

문에 전염병이나 그 외의 풍토병이 없이 위생상태는 좋은 편이다. 현재 사망에 대한 출생률도 해마다 2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 변사자로는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알콜을 음용하는 관습이 있어 알콜 중독 및 만취에 의한 변사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위생설비로는 페트로파블롭스크에는 괜찮은 병원설비가 있다. 오호츠크와 그 외 도읍(都邑)의 못습을 갖춘 지역에는 의생(醫生)이 있고, 변방의 촌락에는 의약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여름철 일본인 어업자가 출어 중 일때는 니치로어업회사가 13명의 의사를 연안 주요 사업소에 배치하여 보건소, 약국 설비를 갖추고 있어 토착민들은 물론 다른 출어자들도 그 은혜를 받는다.

#### (10) 종교

종교는 러시아정교, 가톨릭교, 그레고리-아르메니아교, 개신교 루터파와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번성한 것은 러시아정교로 가톨릭교가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거의 교세가 비슷하고 미비한 실정이다. 산간의 촌락에 이르기까지 빈약하게나마 사원을 짓고 기도하거나 혹은 설교 등을 행하는 것도, 진실로 신앙을 위해 출석하는 신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교화의 보급과 같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감이 있다.

### 3) 이주 한인 관련 주요내용

1884년 조선과 러시아 간에 맺은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은 새로운 차원의 한인이주의 전환점을 갖게 한다(이채문 2000, 52). 이 조약에 따라 조약체결 이전에 러시아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3가지로 분류하여 각 부류에 해당하는 한인 거주에 대한 상이한 제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승제 1971, 149-168). 이 시기 이후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상인들의 이주 또한 증가하게 된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오데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로 개설로 러시아측의 농민들을 극동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 시기와 맞물려 1892년에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한인 국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러일전쟁 이후 잠시 주춤하긴 하였으나 1910년 일본의 국권침탈과 함께

한인들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 책이 출간된 시기에는 러시아 내 한인의 수는 10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가이 1996, 8; 박경숙 2009, 29-58).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는 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한인의 비율이 90% 정도였다. 이는 농사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다는 점,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 그리고 한인 이주민들이 대부분 빈손으로 이주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농업, 광산, 부두, 산림채벌, 공업, 운수 및 철도분야에서 종사하였다(이채문 2000, 54).

캄차트카주 및 사할린주 지역의 이주 한인들은 지역 특성상 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극동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이 농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금장(砂金場) 등에서의 광산노동에 종사하였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표 3). 러일전쟁 이전까지의 러시아의 정책은 노동력이 부족한 극동지방에서 인내심이 강하고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한인이나 중국인에 의한 노동력을 선호하였다. 외국인 노동력의 선호는 한인의 사금노동자와 어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05년 이후 극동에서의 러시아 정부의 이주정책은 강력한 제한조치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1906년 5,865명이나 되던 사금장에서 한인노동자들은 1909년 금광에서 모두 철수하게 된다. 사금장에서 퇴거한 한인이주민들은 도시나 촌락으로 숨어들었고 중국인들이 이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정태수 1989, 252). 또한 어업에서 이주 한인들의 축출조치로 1904년경 약 3,000명이나 되던 한인 어업노동자들이 1910년에는 겨우 938명만이 남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1927년 소련의 신경제정책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한인들은 축산과 농업에만 종사하는 비율이 45%, 농민으로서 호수와 어업만을 종사하는 비율은 25%, 공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 그 밖에 소매상인과 밀수업자 등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0%로 나타나고 있다(김세용 1935, 261-278).

『극동의 수산』 본문에 기록된 캄차트카반도 거주 한인의 수는 1921년~1922년(대정10~11년) 기준으로 페트로군(ペトロ郡)에 200명, 아나도리군(アナド郡) 3명, 오코츠크군(オコツク郡) 170명으로 총 373명이다. 이주 한인들은 대부분 함경북도 출신이고 드물게 경성 또는 평안남도가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들의 마을인 '신한촌' 출신으로 이 시기 러시아

정치 상황과 맞물려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했던 것이 캄차트카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어업 종사 한인들은 주로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이나 우수리강 및 아무르강 하류 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어획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현규환 1967, 740-976). 또한 부두에서의 하역작업에 많은 인부가 필요하였고 한인들은 러시아의 용역중개업자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다. 이들 한인 어업동자들의 수는 1913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약 1,059명이었다. 1905년부터 어업 종사가 외국인에게는 금지되어 러시아 국적을 갖지 않은 한인들은 어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숫자도 1904년 약 3,000명에서 1910년에는 93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어업 종사 한인들은 대부분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다(권희영 1993, 153-186).

이런 배경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어업에 종사하던 한인 어부들은 러일어업협정에 의해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게 고용되어 연해주 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사할린과 캄차트카반도의 연안 고기잡이에 고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본문에서는 특히 조선인의 생활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간지방에 사는 조선인들은 뿔감을 팔아 생활하며 겨울철 생업기반은 수렵 및 물자의 운반이었다. 캄차카반도에서는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허가를 받아 누구나 뿔감용 나무를 벌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자작나무 등의 잡목을 벌목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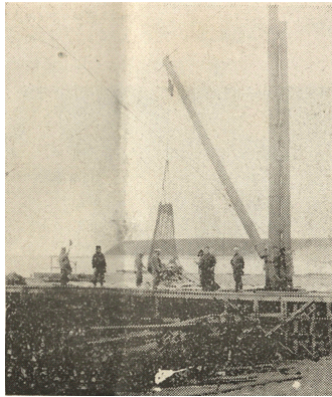
특히 어업과 관련한 기록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구 부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여름에는 연어, 송어 어업의 노동자로 러시아인에게 고용되거나 혹은 어업권을 가진 자본가 혹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인망(地引網)을 빌려 어업에 종사하며 겨울철에는 산간지방에 들어가 수렵 또는 운반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레니오 마을의 조선인들은 공동으로 그물을 소유하여 하구 가까이 10여 리를 오르내리며 어업에 종사하고 그 어획물은 국가 운영의 제어구(製魚區)<sup>12)</sup>에 팔거나 물자와 교환하였다.

제국주의 일본 지식인의 시각에서 서술한 서적이므로 캄차트카반도에 이주한 한인들의 출신을 불평분자, 무뢰배, 불한당(不汗黨) 등으로 지칭하는

12) 연어, 송어, 청어, 대구 또는 게 등 수산업을 위해 대역한 특정지역.

반면 1921년(대정10년) 기근 때 일본이 도와준 것을 근거로 한인들이 일본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만난 조선인들의 기량, 근면, 그리고 성실함을 일본인들도 특별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비에트 정부와의 관계와 일본 어업회사인 니치로어업회사의 통조림 공장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조선인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주 한인에 대한 당시 인식이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캄차트카의 어업 활동 모습(극동의수산)



부두전경



하역 후 홍연어

### Ⅲ. 러시아 자료<sup>13)</sup>를 통해 본 캄차트카반도 이주 한인들의 정착과 생활

N.V. Kühner(1937, 161)는 일찍부터 극동민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그의 자료를 부가이(Бурайт Н.Ф. 2022, 8-23) 교수가 2022년 발굴하여 발표하였는데, 관련하여 비교해 본다면 좀 더 객관적인 한인 이주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P. 아브라모바(2022)가 발표한 캄차트카 교회의 등록부(1885~1925년) 기록을 통해 1914년까지 60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특히 1920년 4월 6일 극동공화국이 수립되고 1924년 러시아 내무부가 발표한 한인 정착 관련 자료에는 캄차카 지방 중심부에 한인 114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록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남성이 77명, 여성이 16명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들의 직업은 광부, 어부, 일용노동자, 기타 등이며 요리사와 같은 직업도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 흥미롭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20~4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인 가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표 3).

이채문(2000, 52)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14년 러시아 극동의 이주 한인 수는 64,309명(한인: 44,200명, 러시아국적 한인: 20, 277명)으로 파악된다. 당연히 이 숫자보다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과 함께 한인들의 이주가 계속되던 시기로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한 한인들

13) 본고에서 인용한 러시아측 자료는 202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토대연구단이 조사한 러시아하바롭스크변강국립문서보관소 자료(한국외대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2023), 2022년 부가이 교수가 발표한 캄차트카변강문서보관소 자료(Бурайт, 2022),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국사편찬위원회, 1997), 하바로프스크 문서보관소(Ким Герман, 2017) 등을 활용하였다. 러시아측 자료는 주민수 등의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지방관리들의 한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어 러시아측의 한인들에 대한 시기별 인식차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한인들의 소식을 게재한 『勸業新聞』(1912), 『大東共報』(1909), 『大東新報』(1910), 『東亞日報』(1929) 신문기사 속 내용들을 사용하였다.

과 독립운동가들까지 대량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러시아 극동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가지고 온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뒤바보 1920). 이주 한인들의 90% 정도가 본국에서처럼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런 배경에는 농사짓는 것 이외에는 가진 기술이 없었다는 점,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 그리고 대다수 한인들이 가지고 온 재산이 거의 없는 빈손이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채문 2000a, 54).

특히 1918년에서 1922년까지 일본군이 극동에 주둔한 기간 동안 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주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지역의 벼농사는 1905년 한인들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1923년 연해주 벼농사의 거의 90%가 한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W.S. Lee 2012, 1-8). 이후 일본이 극동에서 철수하고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주 한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으로써 1920년 후반 이주 한인들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캅차트카반도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들은 러시아 관헌의 행정하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 한인들 내부에서는 자치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권희영 1993, 153-186). 한인들의 자치기구로 ‘색중청(色中廳)’이 있었는데 1년 1차의 정기대회를 통해 집행부를 선출하고 청원을 들어주었다. 또한 러시아 관청의 징세 편의를 위해 ‘풍속’이라는 자치기관을 설치하여 풍속을 처리하고 향약과 마찬가지로 관혼상제를 공동으로 참여하고 환난상구, 과거상규 등의 일을 처리하여 열악한 환경 속 한인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의 가족구조와 관련해서는 상술한 그라베(1912)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충격은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결혼과 남녀 성 관계도 러시아인들에게는 무척 난해한 것이었다. 한인들은 러시아 마을에서 함께 살다가도,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웃의 러시아 처녀들과 결혼하기보다는 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 신붓감을 구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여인들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외부인과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인들이 자신들만의 전통을 잘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한 러시아 정부는 여자들에게 러시아어를 교육하는 것을 한인들을 러시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았다. 한인들의 성생활도 매우 특이하였는데, 한인들은 광

산으로 일하러 갈 때 반드시 자기의 부인을 동행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해서 기록한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100명 중 4~5명의 여자가 있었고, 중국인들은 50% 정도, 한인들은 90% 정도가 남자 일꾼과 함께 온 여자가 있어서 한인 사회에서는 거의 매춘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림 3> 극동 한인들의 모습(재외동포사 총서 7, 2008)



한인가족과 판자집



블라디보스토크 부두가 채소 판매

러시아 극동에 이주한 한인들이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러시아정교로 개종해야만 하였다. 제정 러시아는 제정일치로 정치권력과 종교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들은 러시아정교의 신자가 되어야 제정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국적을 취득하여야 토지를 분여 받을 수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8, 402). 러시아정교회에 귀의한 한인 신자라 할지라도 관혼상제의 의식은 전통 혼례식을 거행하는 등 조선에서와 같았다. 러시아 국적에 편입하는 한인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한인들이 러시아정교회에 귀의하는 추세는 오히려 정체되었다. 특히 연해주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 한인 신도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언어 장벽이 러시아정교회와는 다르게 거의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은 본국에서 갖었던 토속신앙과 제사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3> 캄차트카 지방 페트로파블롭스키 거주 한인이주민 현황  
(1913-1914년)(Быраћ 2022, 54)**

구분		주민수 (명)	직업				
			광산업	어업	일용노동자	요리사	기타
남성	성인	70	29	3	24	1	11
	15세 이하	7					
여성	성인	7	-	-	-	-	-
	15세 이하	9					
총계		93	29	3	24	1	11

시기별로 차이가 다소 있지만 이주 한인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일구는 한인들의 근면함과 농사 기술은 러시아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러시아 역사 바긴(V. Vagin)은 『아무르의 한국인』(W.S. Lee 2012, 7)이라는 저서에서 한인들은 근면하고, 깔끔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에 매우 용할 것이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 IV. 맺음말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極東之水産(극동의 수산)』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14년이 지난 1924년에 출판된 수산업 전문서적으로 특히 캄차트카반도의 수산업 현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이주한 한인과 관련해 연해주 지역에 대한 자료들은 러시아측의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게 되었다. 러시아측 자료를 살펴보면 1910년대 100여명 이상의 한인이 캄차트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한인 수가 늘어났음을 극동의 수산 자료를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24년 일본에 의해 출판된 러시아 캄차카반도 수산업 현황을 서술한 전문서적에 이주 한인과 관련한 기록을 남긴 것은 매

우 희귀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 시기 일본은 제조업·자본수출 그리고 금융 지배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본문 속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머나먼 러시아 극동 캄차트카반도에서 만난 조선인들의 기량, 근면, 그리고 성실함을 일본인들도 특별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평가는 러시아인들에게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 이주 한인들이 성실함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놀랍도록 적응을 잘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자료 『極東之水産』 자료를 통해 1920년대 러시아 극동 캄차트카반도에 거주했던 한인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일본의 시각에서 한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본문 속 내용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한국학계와 일본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극동의 수산』의 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었던 캄차트카반도 거주 한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산업 관련 전문서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수산업에 집중하였는지와 함께 러시아의 캄차트카 반도 내 수산업현황, 어업 및 통조림 제조 등 전문적인 부분이 서술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한인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전체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극동의 수산』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권희영 (1993).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國史館論叢』. 41, pp. 153-186.
- 고승제 (1971). “沿海州 移民의 社會史的 分析” 『白山學報』. 11호, pp. 149-168.
- 김세용 (1935). “西伯利亞의 朝鮮人活動” 『自由와 平和』. pp. 261-278.
- 박경숙 (2009). “식민지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권, pp. 29-58.
- 박보리스·부가이 니콜라이, 김광한·이백용 역(2005).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 재러 한인이주사』. 시대정신, p. 530.
- 배은경 (2000). “1920년대 소련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 사회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 운동사연구』. 25권, pp. 268-306.
- 부가이 니콜라이, 최정운 역(1996).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p. 8.
- 요시다 케이이치, 박호원·김수희 역 (2019).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p. 268.
- 이근우 (2011). “韓國水産誌의 編纂과 그 목적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7, pp. 103-128.
- 이동언 (1991). “노령지역 초기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권, pp. 205-232.
- 이상근 (2010).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p. 366.
- 이재혁 (2011).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5권. 1호, pp. 85-135.
- 이채문 (2000a).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非農業職)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3권. 2호, p. 53.
- 이채문 (2000b).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슬라브학보』. 제15권. 1호, pp. 349-384.
- Young Sool Kim (2021). “러시아 극동 소련 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계획과 이주 과정 : 1937년 이주문서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53권, pp. 51-95.
- 朝鮮海水産組合本部 (1909). 『山口縣水産試驗報告』, 京城: 朝鮮海水産組合本部, p. 148.
- Lee W.S. (2012). *The Koreans' 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and their Deportation to Central Asia: From the 1860s to 1937*,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Oregon, pp.1-8.

- Граве, В.В. (1912).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 ой экспедиции : вып. 11 Китай цы, корей цы и японцы в Приамурье*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489 с.
- Бугай Н.Ф. (2022). “Корей цы: заселение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Откуда корей ц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проблемы заселения, специфика, трудовая занятость, прошлое, *Культурный ландшафт регионов*. Том 4. №2-3, М., С. 8-23.
- Ким Г.Н. (2017). *ХРОНОЛОГИЯ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Print Express. Издательство и полиграфия, 118 с.
- Ким С.Х. (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с. 252. / 정태수 편역(1989), 『소련韓族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Кюннер Н.В. (1937), *Этногенез японцев*. М., С. 161.

## 2. 기타

Абрамова Е.П. (2022). <http://old.kamgov.ru>. (2025년 1월 17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5년 04월 08일 |

| 논문심사일 : 2025년 05월 14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05월 21일 |

| ABSTRACT |

**A study on the settlement and life of Korean  
immigrants in the Kamchatka Peninsula of Russia in  
the 1920s**

- Focusing on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s  
collection of 『Far Eastern Fisheries』 -

**Pang, Minkyu**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ew data on Koreans living in the Kamchatka Peninsula in the Russian Far East in the 1920s through the National Maritime Museum's collection of 『Far Eastern Fisheries』. In particular, it aims to examine how Koreans were perceived from a Japanese perspective through the content of the text.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introducing data on the lives of Koreans living in the Kamchatka Peninsula, an area where information was relatively lacking, through the content of 『Far East Fisheries』, which has rarely been mentioned in Korean academic circles or in Japan. In particular, although specialized books on the fisheries industry have described how much Japan focused on the fisheries industry, the current status of the fisheries industry in the Kamchatka Peninsula of Russia, fishing, and canning, this paper focuses on introducing data on Koreans.

The National Maritime Museum's 『Far Eastern Fisheries』 is a specialized book on the fisheries industry published in 1924, 14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We translated and reviewed the material written in Japanese and examined it, focusing on the content related to Korean immigrants. We also reviewed Russian data, which estimated that over 100

Koreans lived on the Kamchatka Peninsula in the 1910s. We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Korean immigrants more than doubled over the next 10 years. At the time, Japan was strengthening its colonial rule through manufacturing, capital exports, and financial control. It is considered an extremely rare case that a Japanese-published book on the Kamchatka Peninsula fisheries industry in 1924 included a record of Korean immigrants. The author, Hayashi Komao (林駒生), who had extensive knowledge of Korea, also seems to have acknowledged the diligence and sincerity of the Koreans he met on the Kamchatka Peninsula in the Russian Far East. This evaluation is similar to the Russians' evaluation of Korean immigrants, suggesting that Korean immigrants have adapted surprisingly well to their new environment.

- Key words :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Russia, Far Eastern Fisheries, Kamchatka Peninsula, Korean immigrants